



특허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4.(월) 09:00	배포 일시	2022. 2. 14.(월) 08:30
담당 부서 <총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2-481-8555)

한국, 2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3.2%)이 일본, 중국 등 상위 5개국 중 가장 높아 -
-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기업은 삼성전자(3위), 엘지전자(4위) 2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이하 PCT* 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20,678건) 하였으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특허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서를 WIPO 등에 제출하면 특허취득을 원하는 복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붙임 1 참조)

**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순위 : 4위('07~'09) → 5위('10~'19) → **4위('20~'21)**

○ 특히,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중국, 미국, 일본, 우리나라, 독일) 중 가장 높은 것(3.2%)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본, 독일의 2021년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6%, 6.4% 감소하였고 중국과 미국은 각각 0.9%, 1.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제특허출원(PCT) 출원건수는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세계 1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세계 5위)에서 각 국가의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 신뢰성이 높은 국제기구(WIPO), 유럽경영대학원(INSEAD) 등이 주관하는 국가간 혁신역량 평가지수로 2021년에는 132개국 대상 81개 지표로 평가

- 2021년 전세계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277,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고, 중국은 69,540건을 출원하여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2020년 대비 0.9% 증가하였는데, 세계 2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19년 1,694건, '20년 10,446건, '21년 9,97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화웨이(HUAWEI)는 6,952건을 출원하여 2017년부터 5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로 조사된 퀄컴(QUALCOMM)은 상위 10개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80%)을 기록하였다.

-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상위 10개 기업 중 우리나라는 삼성전자(3위), 엘지전자(4위)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특허출원 강국임이 확인됐다.

-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마드리드출원(WIPO 국제상표출원)* 건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1개의 출원서를 본국관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복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

- 우리기업 등의 2021년 마드리드 출원건수는 1,973건으로 전세계 11위 규모인데, 그 증가율이 '19년 9%, '20년 13%, '21년 24%로 전세계 마드리드 출원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전세계 마드리드 출원 증가율 : 5.7%('19년) → -0.6%('20년) → 14.4%('21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순위는 '18년 14위에서 '21년 11위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세계 10위 터키와의 마드리드 출원량 차이도 2020년 294건에서 2021년 100건으로 줄어들었다.

□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기업 등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출원서비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 사무소를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특허청 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이 혁신활동의 결과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해외에서 핵심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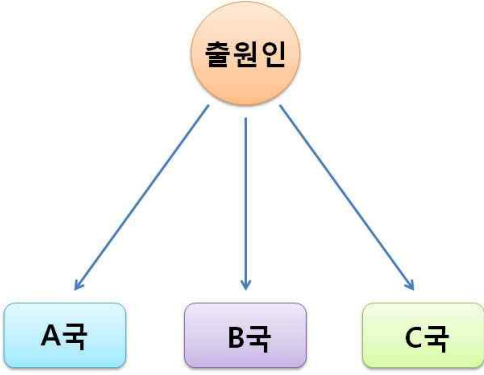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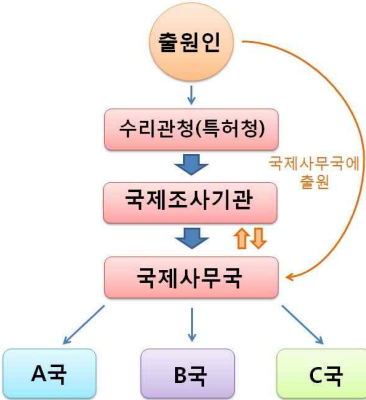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윤세영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허원석 (042-481-8555)
<공동>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기웅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이다나 (042-481-5741)
<공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8265)
		담당자	사무관	강승구 (042-481-8343)
<공동>	특허청 국제출원과	책임자	과 장	이석원 (042-481-5150)
		담당자	사무관	남은진 (042-481-5194)

붙임 1 PCT 출원(특허국제출원)

- (개요)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해외 '직접 출원'과 'PCT 출원' 절차 비교 >

해외 직접출원	PCT 국제출원
	
• 각 국 언어로 출원서 작성 • 각 국 개별출원 절차	• 조약 등에서 정하는 언어로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절차

- (연혁) 1978년 발효된 PCT 조약에 우리나라는 1984년 36번째로 가입하였으며('22년 2월 기준 155개국 가입), 2007년 국어가 PCT 국제출원 공개어로 채택
- (중요성) PCT 출원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WIPO 총 수입의 76.6%를 차지('20년 기준)할 정도로 WIPO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 PCT 출원건수는 블룸버그(Bloomberg)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1위), WIPO 글로벌 혁신지수('21년 우리나라 5위)에서 각 국가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

붙임 2 PCT 출원(특허국제출원) 현황

□ 전세계 PCT 출원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건)	194,400	205,300	214,500	217,335	232,907	243,511	253,000	265,381	275,900	277,500
증가률	6.6%	5.1%	4.5%	1.7%	7.3%	4.5%	3.9%	5.2%	4.0%	0.9%

□ 국가별 PCT 출원 현황(상위 10개국)

구분	국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	증가율(%)
1	중국	43,091	48,905	53,345	59,193	68,923	69,540	0.9
2	미국	56,591	56,676	56,142	57,499	58,477	59,570	1.9
3	일본	45,209	48,205	49,702	52,693	50,578	50,260	-0.6
4	대한민국	15,555	15,751	17,014	19,073	20,045	20,678	3.2
5	독일	18,307	18,951	19,883	19,358	18,499	17,322	-6.4
6	프랑스	8,210	8,014	7,914	7,906	7,782	7,380	-5.2
7	영국	5,504	5,568	5,641	5,773	5,889	5,841	-0.8
8	스위스	4,369	4,488	4,568	4,627	5,119	5,386	5.2
9	스웨덴	3,719	3,975	4,162	4,202	4,351	4,453	2.3
10	네덜란드	4,675	4,430	4,138	4,055	3,996	4,123	3.2
전체		232,907	243,511	253,000	265,381	275,900	277,500	0.9

□ PCT 상위 20개 기업

구 분	기업명	'20년 출원건수	'21년 출원건수	순위 변동	구 분	기업명	'20년 출원건수	'21년 출원건수	순위 변동
1	화웨이	5,464	6,952	-	11	PING AN	1,304	1,564	↑ 6
2	퀄컴	2,173	3,931	↑ 3	12	NTT	1,372	1,508	↑ 3
3	삼성전자	3,093	3,041	↓ 1	13	ZTE	1,316	1,493	↑ 3
4	LG전자	2,759	2,885	-	14	HP	1,595	1,485	↓ 3
5	미쓰비씨	2,810	2,673	↓ 2	15	NEC	1,121	1,350	↑ 5
6	오포	1,801	2,208	↑ 2	16	VIVO	955	1,336	↑ 7
7	BOE	1,892	1,980	-	17	MS	1,529	1,303	↓ 5
8	에릭슨	1,989	1,877	↓ 2	18	보쉬	1,375	1,213	↓ 5
9	소니	1,793	1,789	-	19	후지필름	1,128	1,095	-
10	파나소닉	1,611	1,741	-	20	SZ JDI	1,073	1,042	↑ 1